

김모임회장의 국회의원당선에 바란다



田 山 草
(연세 간호대학 학장)

먼저 대한간호협회 회장으로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모임 박사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번영 그리고 그가 소망하는 귀중한 일들에 성공적인 진취와 성과가 있기를 축원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한간호협회 회원의 한 사람 또한 동료 교수단의 한 사람으로서 김의원의 앞으로의 정치활동에 기대와 바람이 크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김의원을 생각할 때 믿음직스럽고 소망스러운 감을 감출 수가 없다. 그는 현시국에 있어서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국정에 참여하는 한 여성의 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여건, 즉 학문과 경험과 인품을 모두 갖춘 준비된 인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마치 오늘의 이 중책을 담당하기 위해 과거 오랜동안 꾸준히 준비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단지 정치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염려를 가지나 도리어 새로움과 신선한 자질이 더욱 바람직하다.

지난번 김의원이 제107회 국회에서 對정부 처녀 질의를 할 때 본인은 방청석에 앉아서 마음 졸이며 방청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너무나 적격 타당하고 조직적이며 과학적이고 논리적인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과거 교수생활에서 학자요 교육자로서 연구와 강의를 많이 한 체형

과 그 능력이 충분히 발휘 활용된 것이다. 정치도 이러한 탐구방법과 경험으로 해 나간다면 국민과 회원을 위해 바람직한 선량이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마저 갖게 하였다.

우리를 대신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친애하는 김의원에게 무엇을 더 부탁을 하여 어깨를 무겁게 해주고 싶지는 않다. 다만 바라는 것은 1) 처음과 나중에 같아 항상 새롭고 변함이 없는 신뢰받는 의원이 되어주기 바라며 2) 국가나 국민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계속 조사 연구하는 학자 정치인이 되어주기 바라며 3)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닥쳐도 유연하면서도 끈질기고 힘찬 지혜와 용기와 긍정적인 철학을 가지고 선한 승리를 하는, 그리하여 나라와 국민이 발전하고 번영하는 역사의 큰 물결에 크게 기여하고 영향력 미치는 참된 지도자요, 정치인이 되어주기 바란다. 4) 끝으로 우리나라의 국민복지의 핵심적 요소인 보건사업의 이상적 실현을 위하여 일할 때 국민의 건강인권과 보건의료원들의 활동에 따른 문제점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활약해 주기를 바란다.

학교 일이 바쁘고 교수 인력이 매우 부족한 요즈음 잘 준비된 교수를 잘 길러서 국회에 빼앗긴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이 들어 큰 손해를 본 것 같아 아쉬움과 서운한 마음이 문득문득 나곤 한다. 그러나 이것도 대학이 국가나 사회에 봉

사하는 기능 중에 하나를 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니 마음이 후련해진다.

앞으로 수고할 김의원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딤후 4:8)



니가 전서 5장 16—18절) 하신 성경말씀을 선물로 증명하며 치하와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바이다.

김진순 (한국보건개발연구원 연구위원)

4만 4천여 간호원의 오랜 염원이요 소망이었던 간호원출신 국회의원이 1980년대에 탄생되었다는 사실로 가슴설레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00년초 이땅에 서구의 간호가 시작된 이래 많은 간호계선배들은 불충분한 여건, 사회의 낮은 인식 등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나이팅게일의 등불을 밝히기에 조금도 자신을 돌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십년이 흐른 지금, 초창기 간호계 선배님들의 시대에 비하면 참으로 놀라운 만큼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아직도 임상에서, 지역사회에서, 간호교육분야에서 어려움과 난제들은 산재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보건간호계는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데, 보건간호사업을 위해 일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데 김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는, 보건간호사업을 위한 지도감독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1962년에 개정된 보건소법이 공포된 이래 간호원이 보건소단위에 배치되어 보건간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보건간호업무실정과 말단보건요원에 대한 지도감독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보건의료전달제도 내에서의 보건간호원의 위치가 불확실함은 물론 실제업무추진에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및 면단위에 지도감독체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둘째, 보건진료원의 신분보장 및 역할설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

별조치법이 공포되어 보건진료원이 계속해서 현지에 배치될 예정으로 있으나 지방보건의료전달제도 내에서의 보건진료원의 위치 불확실과 정규직으로의 신분보장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보건진료원은 공무원신분이 아닌 군수 “위촉신분”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활동에 자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면단위의 정규직 보건요원들과의 팀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포괄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지원체계의 확립이 시급합니다.

셋째, 간호사업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각종 보건의료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이 시점에 지역사회간호원의 역할확대는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증대되는 간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보사부 직제에 간호사업과가 부활되어야 하며 전반적인 간호활동의 개선, 자료개발 등의 업무 추진이 시급합니다.

넷째, 학교양호교사를 위한 교직원활동의 보장 및 활동 극대화를 위하여 교육위원회에 양호교사가 장학사로 파견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포괄적인 보건의료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직 간호원을 위한 보수교육제도가 도 및 중앙단위에 확립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사회주민의 요구가 큰 도자보건관리에 대한 추가교육 및 이에 따라 조산원 면허증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간호교육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간호전문대학 및 간호학과 교육과정에 일차보건 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개선이 시급하며 특히 교육과정 속에 모자보건관리, 일차 진료 및 지역사회개발활동에 필요한 영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보건간호분야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위의 6가지 문제들이 시급히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김모임위원의 국회에서의 활동이 순조로이 이루어지도록 전 회원이 힘을 합쳐서 끊임 없이 활동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 미 순
(서울의대 간호학과 3년)

우선 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현재의 간호계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선배님들의 어려운 사정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간호계를 깊이 이해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이 모자람을 느끼면서 안타까워한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직은 학생의 입장이라 무엇이 가장 간호계를 위해 필요하고 어떤 도움이 실제적인 업무에 절실히 요구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므로 그냥 막연하게 어떤 힘과 용기가 가슴으로 스며오는 듯합니다.

저희 학생들은 아직은 간호계의 초보자로서 간호학이라는 커다란 울타리에 이제 겨우 한 발을 들여 놓은 상태라 아직은 간호업무가 어떤 식으로 펼쳐져 있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거의 모릅니다. 다만 들기도 무거운 커다란 책을 앞에 놓고 외우고 잊어버리고 또 외우고, 많은 시험에 공공거리면서 꼭 채워진 학사일정에 정신없이 하루 하루, 한달 두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은 산더미같이 눈 앞에 쌓여 있고 몸과 마음은 거기에 잘 맞추어지지 못하고 특히 임상 실습이 병행하게 되면 실습에서 오게 되는 많은 사고를 쫓아는 요소들로 인한 심한 갈등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또 언제나 우리 마음 속에 잠재해 있습니다. 실습에서 생과 死에서 신음하는 환자를 보고, 심한 고통으로 인해 온통 눈물로 범벅이 된 환자의 얼굴을 보면서 원가를 해주고 싶고 사정이 여의치 못하면 적어도

한마디 위로라도 해주고 싶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수십 번 머리 속에서 구상하고 또 구상하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안타까워 하기가 수십번, 간호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힘든 학문인가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가끔은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선배님들의 조언과 아울러 격려를 부여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간호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소수 사회 구성인들의 잘못된 생각들, 간호원에 대한 사회적 대우와 아울러 아직은 미비하기만한 간호업무들은 어떤 때는 저희 학생들에게 슬픔과 좌절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슬픔과 좌절을 느낄 때 항상 머리 속에 떠오르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간호계를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선배님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간호와 관련된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인식의 혁신을 위해 현재 애쓰고 계시는 선배님뿐만 아니라 간호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개인 하나 하나가 열심히 정성을 다해 힘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간호업무에 대해 좀더 강한 도움이 필요한 때, 김모임선생님께서 국회위원에 당선이 되고 좀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니 간호학과 학생의 한사람으로서 무한한 기쁨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많이 힘써 주시고 도와 주셔서 좀더 나은 간호계의 발전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으면 합니다.